

칸트에 있어 동일성과 근거

박진

목차

- I. 서론
- II. 본론
 - 1. 동일과 統一
 - 1) 동일과 모순
 - 2) 동일성과 통각의 종합적 統一
 - 2-1. 『Nova Dilucidatio』에서 동일률
 - 2-2. 『Kritik』에서 통각의 종합적 동일 원리
 - 2. 無(nihil)의 문제
 - 1) 논리적 모순과 실재적 대립
 - 2)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의 구별근거
 - 3. 근거(ratio)
- III. 결론

I. 서론

동일율과 모순율 및 충족이유율은 모든 사유가 필연적으로 그에 따라야하는 사유의 근본 원리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도대체 이런 원리들이 서로 어떤 내적 연관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원천 자체가 무엇인지는 더이상 물어지지 않았고, 일반논리학은 이들 원리들을 각각 자명한 것으로서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 이렇듯 자명한 것으로 하등의 문제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결코 자명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시 함이 철학적 사유의 본질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 그것들의 형이상학적 기초를 되물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논리학은 비로소 철학적인 근거지움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일반논리학에 대한 반성을 철학적 논리학, 또는 초월논리학(transzendentale Logik)이라 부르기로 하자.¹⁾ 철학적 논리학은 논리적 사유의 원천

1) 이런 초월논리학의 이념은 칸트(I.Kant)를 거쳐 피히테(J.G.Fichte)에 의해 계승되며 (J.G. Fichte,

과 그 원리들의 내적연관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언표하는 사유활동으로서의 Logos자체의 근원적인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이기도하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영향하에 있었던 18C 독일 강단 철학의 형이상학 체계속에서 논리학의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연관 지우는 반성작업이 이미 수행되고 있었음을 주목하게 된다.²⁾ 일반형이상학 즉, 존재론(Ontologia)과 특수형이상학을 구별함으로써 칸트의 형이상학 체계구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볼프(Chr. Wolff)는 데카르트 이래 근대 합리론의 전통에 서서, 이성에 의한 명석·판명한 사유만이 형이상학적 인식의 토대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18C 독일 강단철학에 있어 형이상학은 필연적으로 논리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게 되며 모순율에 기초한 순수 사유가능성으로 부터 形而上學의 전체계가 도출되게 된다.

이러한 독단적 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대결의식은 아직 이러한 합리주의적 사변의 형이상학의 영향 속에 놓여 있었던 전비판기의 사유 속에서도 이미 그 싹을 엿 볼 수 있다. 즉, 칸트는 “형이상학적 인식의 제 1 원리들에 관한 새로운 해명”(principiorum primorum cognitionis metaphysicae nova dilucidatio)³⁾ (1755)이라는 제하의 최초의 형이상학적 저술 속에서, 라이프니츠-볼프 형이상학이 기초하고 있는 인식의 제 1 원리인 모순률(principium contradictionis)을 언급하는 자리에, 오히려 동일률을 모순률에 앞서는 모든 인식의 제 1 원리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독자적이고도 새로운 해명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들의 궁극적인 법칙”(regula ultima veritatum)으로 간주된 同一律이 『비판』에서 “모든 인간 인식의 최상 원칙”(B135)으로 간주된 통각의 종합적 統一원리와 어떤 내적 연관성을 지니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II-1)

또한 전비판기 저술인 “음수개념을 세계지에 도입하려는 시도”(Versuch den Begriff der negativen Größen in Weltweisheit einzuführen)(1763)라는 논문에서는 모순률에 기초한 논

Über das Verhältnis der Logik zur Philosophie oder transzendente Logik. Vorlesungen 1812) 오늘날 후설(E.Husserl)의 현상학적 방법론에 의해 재차 시도되고 있다. (E.Husserl, Formale und transzendente Logik: Versuch einer Kritik der logischen Vernunft. 1929, Erfahrung und Urteil: Untersuchungen zur Genealogie der Logik. 1948) 또한 하이데거(M.Heidegger) 역시 논리학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그의 존재사유론에 나아가는 도약대로 삼고 있다. (M.Heidegger, Logik: Die Frage nach der Wahrheit. 1925/26,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Logik im Ausgang von Leibniz. 1928, Vom Wesen des Grundes. 1949, Der Satz vom Grund. 1957, Identität und Differenz. 1957) 본고는 이런 초월논리학에 대한 역사적-체계적인 고찰에 앞서 수행되는 예비적인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2) 볼프(Chr. Wolff)와 바움가르텐(A.G. Baumgarten)으로 대변되는 계몽기 독일의 프로테스탄트적 강단 형이상학은 데카르트로부터 라이프니츠로 이어지는 근대 합리론의 전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예수회 소속 신학자였던 수아레즈(F. Suarez)를 통해 중세 스콜라철학의 유산을 칸트와 독일 관념론으로 넘겨주는 철학사적으로 볼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H. Heimsoeth, Studien zur Philosophie Immanuel Kant, Köln, 1956, S.4)

3) 이하에서는 「Nova dilucidatio」(1755)로 약칭한다.

리적 대립과 모순없이 성립할 수 있는 실제적 대립(Realrepugnanz) 을 구분함으로써 無(nihil) 개념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열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우리는 칸트가 비판기에 이르러 수행한 분석-종합 판단의 구별이 행해지게 된 근본 동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칸트의 실제적 대립의 개념 속에서 이후 독일 관념론자들에 의해 계승된 변증법적 사유의 원초적인 싹을 엿볼 수 있다.(II-2)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칸트의 전비판기 사유를 되새겨 봄으로써 이후 비판기의 저작 속에서 이성의 월권 행위로 규정한 당대의 강단형이상학에 대해 제기한 날카로운 비판이 어떤 배경하에서 성립하게 되었는지 그 단초를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오랜 전통 속에서 당대에 이르기까지 논리학 뿐 아니라 존재론의 제 1 원리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어 온 모순률이, 칸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지 분석적 인식의 원리로서 형식논리적인 차원에만 그 타당성이 제한되게 된 철학사적 연원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II. 본 론

1. 동일과 統一

1) 동일과 모순

크리스찬 볼프의 존재론(Ontologia) 제 1 부는 “존재자 일반의 개념에 관하여”(De notione entis in genere) 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⁴⁾ 그러나 이런 표제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술은 존재자(ens)내지 존재에 대한 서술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학의 제 1 원리인 “모순률”(pricipium contradictionis)⁵⁾에 대한 해명으로 부터 시작된다. 즉, 모순률은 볼프 형이상학의 제 1 원리이며, 그는 이로 부터 동일률, 근거율등의 제원리들은 물론 형이상학의 전체계를 도출해 낸다. 그러나, 이렇듯 모순률을 존재론의 제 1 원리로 삼은 것은 그의 사유의 독창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유가 오랜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라이프니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성격 뿐 아니라 존재론적 함축을 또한 지니고 있었던 모순률이 존재론적 원리로서의 그 타당성을 상실하고 단지 “분석적 판단의 원리”⁶⁾로서 진리인식의 “소극적 기준”(B190)으로만 타당성이 제한되

4) Christian Wolff, philosophia prima sive Ontologia(1730). I., 2

5) Wolff의 모순률에 대한 정식화는 “동일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feri non potest, ut idem simul sit et non sit.)이다. (Ontologia §28)

6)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1781), B189 칸트는 『비판』에서 지금까지 모순률의 정식화가 「동일한 것이 있는 동시에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impossibile est, idem simul esse ac non esse.), (Nova Dilucidatio, Sectio I, prop. II)는 표현에서와 같이 시간적 조건(simul)이 부주의하게 포함되어 마치 종합명제인 듯한 외양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피하고 모든 분석명제의 원리인 모

게 된 데는 칸트의 비판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도대체 칸트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지 그 배후근거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는 또한 그가 이후 비판기 저작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의 구별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추적해 보는 과제이기도 하다.

볼프의 형이상학적 사유가 모순률을 제 1 원리로 삼는 한, 그의 우선적인 관심은 존재자 자체라기 보다는, 무엇보다도 이성의 무모순적 사유가능성으로 향한다. 이러한 그의 지향은 최초의 형이상학적 저술인 “神·世界·인간의 영혼 및 모든 사물 일반에 관한 이성적 사유들”(Vernünftigen Gedanken von Gott, der Welt, der Seele des Menschen, auch von allen Dingen überhaupt)(1720)을 비롯하여 동일하게 “이성적 사유들”이라는 표제가 붙은 일련의 저술들을 통해서 드러나며, 이런 볼프학파의 전통은 “인간적인 인식의 제 1 원리들을 포함하는 학문”(scientia prima cognitionis humanae principia continens)이라는 바움가르텐의 형이상학 정의나, 또한 앞서 언급한 칸트의 최초의 형이상학적 저술의 표제(principiorum priorum cognitionis metaphysicae nova dilucidatio)속에서도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아직 강단 스콜라철학의 영향하에 놓여 있던 칸트의 초기 사유에 있어서도, 모순률을 모든 진리의 “유일하게 절대적인 제 1 의 보편적 원리”(principium Unicum, absolute primum, catholum)⁷⁾로서 간주하는 당시의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은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칸트는 한갓 논리적인 사유가능성으로부터 존재론의 전체계를 이끌어 낸 종래 합리론이 기초했던 바, 모순율이 과연 모든 진리의 시금석(Proberstein)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즉, “<동일한 것이 동시에 있으면서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impossibile est, idem simul esse ac non esse)>고 정식화되는 모순율은 사실상 단지 불가능한 것(das Unmögliche)의 정의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모순 되는 것, 다시말해 동시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진리가 이런 설명에 즉, 이 시금석에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모든 진리가 그 반대의 불가능성으로부터 확증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또 그것이 진리임을 승인하기 위해 그 자체로 충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⁸⁾ 즉 반대의 불가능성으로부터 진리의 주장에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가 거짓인 것은 무엇이든 참이다.”(cuiuscunque oppositum est falsum, illud est verum) 와 같은 명제를 매개로 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이 명제는 긍정적인 명제이며, 결코 모순율과 같은 부정적인 명제로부터 추론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부정명제로 부터는 단지 부정명제만이 직접 추론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부정명제로 부터 긍정명제가 간접적으로 추론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문제시 되고 있는 “그 반대가 거짓인 모든 명제는 참이다”와 같은 긍정명제를 매개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긍정 명제는 한갓 부정적인 원리로 부터는 성립할 수 없다.”⁹⁾

순율 자체도 분석명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판단은 자기자신과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표현으로 새로이 정식화 했다.

7) I.Kanf, 「Nova dilucidatio」(1755), Sectio I. prop.I

8) ibid., Sectio I. prop.III

그러므로 부정적인 명제인 모순율에 진리영역에 있어 제 1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도대체 부정적인 진리가 왜 긍정적인 진리에 앞서는 우위를 지녀야하는 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진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진리도 포함하는 모든 진리에 대한 제 1의 보편적 원리는 무엇인가? 즉, “모든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최상의 보편적 원리라는 이름을 스스로 요구하는 명제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동일률의 이중 명제(principio identitatis gemino) 속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이와 같은 것을 본다. 왜냐하면 모든 긍정표현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은 계사 “ist” 이며, 부정표현 중 가장 단순한 것은 계사 “ist nicht” 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개념보다 더 보편적인 것은 생각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합성된것은 단순한 것으로부터 빛을 얻으며 단순한 것 보다 더 규정된 것이 더 일반적인 것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칸트는 긍정적 진리와 부정적 진리라는 두 종류의 진리가 있는 한, 모든 진리의 절대적인 제 1 원리(principia absolute prima)는 두 명제로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칸트는 “있는 것은 있다”(quicquid est, est)와 “없는 것은 없다”(quicquid non est, non est)라는 두 정식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 둘을 함께 “동일률”(principium identitatis) 이라고 부른다.¹⁰⁾ 이제 칸트는 이렇듯 최초의 절대적 원리로서 확립된 동일률이 진리의 서열상 종래의 모순율에 앞서는 우위를 지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¹¹⁾

2) 동일성과 통각의 종합적 통일

2-1) 『nova dilucidatio』에서 동일률

칸트는 이렇게 제 1의 지위를 부여한 동일률에 대해 독자적인 새로운 해명을 시도한다. 즉, 그는 동일률을 한갓 $A=A$ 와 같은 동어반복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개념과 술어개념의 일치(convenientia notiorum subjecti et praedicati)로서 해명한다. 그것은 주어에 의해 정립되거나 부정되는 것이, 술어를 포함하거나 술어에 의해 부정될 때, 주어와 술어는 일치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주어가 그 자체로(in se) 고찰되건, 또는 결합에 있어(in nexu) 고찰되건 술어개념을 포함하는 것을 정립하거나, 또는 술어개념에 의해 배제(excludere)되는 것을 배제할 때는, 항상 술어가 주어에 귀속한다고 말하며, 이를 좀더 분명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즉, 주어개념과 술어 개념 사이에 동일성(identitas)이 발견되면 명제는 참이다. 이를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 1 원리에 이른다.”¹²⁾

9) ibid., Sectio I, prop. I

10) ibid. Sectio I, prop. III

11) ibid. Sectio I. prop II

12) ibid. Sectio I. prop.III

즉, 하나의 명제 내지 판단의 진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립된 개념이 술어로서 주어와 결합됨을 긍정하는 것 뿐만아니라, 이 개념의 반대가 동일주어와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배제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정립된 술어와 모순되는 술어를 배제함이 바로 모순률의 내용이다.¹⁴⁾ 그러므로 동일률은 모순률에 앞서, 모순률을 자체내에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⁵⁾ 따라서, 이런 동일률은 모든 명제와 판단의 진리가 그에 기초하는 진리들의 궁극적인 법칙(*regula ultima veritatum*)이며, 모든 주어와 술어의 참된 결합 가능성이 그에 기초하는 원리이다.

우리는 여기서 동일률에 관한 칸트의 해명을 전통적인 판단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판단(*λογος*)이란 개념들의 결합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그것은 술어를 주어와 결합(*συνθεσις*) 또는 분리(*διαίρεσις*)하는 지성의 활동이며,¹⁶⁾ 긍정(*καταφασις*) 또는 부정(*αποφασις*)하는 활동이다.¹⁷⁾ 판단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지성의 기능인 판단(*iudicium*)은 결합(*compositio*) 하고 분리(*divisio*)하며 긍정(*affirmatio*)하고 부정(*negatio*)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¹⁸⁾ 가장 넓은 의미에서 판단은 표상들의 관계다. 즉, 두 표상들의 관계가 비교되어 동일한 것으로 결합될 때 긍정판단이 성립하며, 두 개념이 비교되어 모순된 것으로 분리될 때는 부정판단이 성립한다. 따라서 긍정 판단의 계사 "ist"는 주어와 술어의 결합을 표시하며 부정판단의 계사 "ist nicht"는 주어와 술어의 분리를 표시한다.

여기서 문제는 표상들의 비교의 기준인 동일성(*identitas*)의 의미가 무엇이냐는데 있다. 라이프니츠에 있어서는 그것이 주어 개념 속에 술어 개념이 내포됨(*inclusio*)을 뜻한다. 즉, 모든 참된 긍정 판단의 술어는 주어 개념 속에 이미 있는(*in esse*) 징표들을 이끌어 낸 것이며 따라서 술어와 주어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술어는 주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부정 판단의 술어는 주어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았던 징표이며, 따라서 그것이 주어에 의해 배제되는 데서 판단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부정 판단은 술어가 주어에 속하지 않고 주어와 모순되는 것으로 분리됨을 표현한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판단이론은 모든 참된 긍정판단의 술어가 주어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내포이론이다.¹⁹⁾

13) *ibid.*, Sectio I. prop. II

14) 즉 "정립된 개념에 모순되는 술어가 배제된다는 것은, 실로 모순률에 의한 것이다." *ibid.* Sectio I. prop. V

15) 동일률이 모순률에 앞서 전제된다는 이런 사태연관을 우리는 「비판」에서 "통각의 분석적 동일은 종합적 통일을 전제해서만 가능하다." (B133)는 명제와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명제에 대한 상세한 해명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칸트 초월철학에서의 형식개념, 1990, S. 73ff 참조.

16) Aristoteles, *De interpretatione* I. 16a 12 cf. *De anima* 6, 430b 1

17) *ibid.* 5, 17a 8

18) Thomas von Aquinas, *Quaestiones disputatae de veritate*, q. XIV. a. 1

cf. Chr. Wolff역시 그의 논리학 §40절에서 판단을 개념들의 결합(*coniunctio*)과 분리(*separatio*)로서 정의한다.

19) M. Heidegger,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Logik im Ausgang von Leibniz*, Bd. 26 S. 40

“우리가 한 술어에 대해 그것이 한 일정한 주어에 참으로 속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숙고해 보아야한다. ... 만일 한 명제가 동일하지 않다면, 다시말해 술어가 명시적으로 주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잠재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철학자들은 술어가 주어 속에 있다(est dans)는 것을 내존재(in-esse)라고 부른다.” 그는 자신의 내포적인 판단 이론을 아리스토텔레스와 결부시킨다. “모든 참된 명제는 증명될 수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술어가 주어에 내재할 때 혹은 술어 개념이 완전히 인식된 주어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주어 개념이 포함하고있는 것을 분해함으로써 명제의 진리는 증명될 수 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에게는 모든 참된 판단은 동일성(무모순성)에 기초한 분석 판단이다. “모든 긍정적인 참된 언표에 있어-그것이 필연적이건 우연적이건, 보편적이건 특수한 것이건 간에 -술어 개념이 주어 개념 속에 어떤 방식으로든 포함되어있다. (praedicatum inest subjecto)” 그러므로 동일성은 필연적인 이성의 진리들(vérités de raison) 뿐만 아니라 우연적인 사실적 진리들(vérités de fait)에 있어서도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어와 술어의 동일성이 명시적으로 표상된다면, 후자의 경우 잠재적으로 은폐되어 있지만 원리적인 가능성에 있어서는 역시 동일성 명제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인식은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경험에 앞서 예컨대 케사르의 완전한 개념을 소유하지 못하며 따라서 주어 개념으로부터 모든 술어를 이끌어 낼 수 없지만, 신의 무한한 인식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참

20) G. W. Leibniz, discours de metaphysique 1686. § 8

21) G. W. Leibniz, opuscles et fragments inédits de Leibniz, ed. par L. Couturat, Paris, 1903 [Nachdruck Hildesheim 1961]; S.388 재인용 Heidegger.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Logik im Ausgang von Leibniz* 1978, Bd.26 S.43

22) 이렇듯 사실의 진리를 이성의 진리에로 동화시키려는 경향은 원리적으로 신의 단순성(simplicitas Dei)이라는 이상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칸트에 있어서는 “이성이 사물을 일관되게 규정함에 있어 근거에 두는” 모든 가능성의 질료(Materie der aller Möglichkeit)로서, 실제성의 총체(omnitude realitatis) (B604) 라는 이상(Ideal)이다. 칸트 역시 동일물의 해명 속에서 신적인 인식에 궁극적으로 지향되어 있음은 다음과 같은 언표 속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즉, “진리의 궁극적인 법칙(동일률)으로 부터 밝혀지듯이 우리의 모든 추론은 술어와 그 자체로 고찰되거나 결합에 있어 고찰된 주어 사이의 동일성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게 되지만” 그러나 이에 도달하기 위해 “신은 결코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에는 모든 것이 가장 명료한 방식으로 열려져 있고 일치(convenientia)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동일한 표상 작용이 자신의 지성 앞에 세우며 또한, 신적 지성은 우리의 이해를 어둡게하는 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어떠한 분석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Nova dilucidatio, Secito I, prop. III. scholion)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영원한 현재(nunc stans) 속에서 보는 순수 현실태(actus prima et prus)로서의 전통적인 신적 인식 (scientia Dei)의 이상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cf. Thomas von Aquinas, *Summa theologiae*, qua. XIV art. 9) 즉 신의 인식은 분해나 분석을 필요로 하는 추론적(discurisiva)인식이 아니라 전체를 동시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 속에서 본다.(Deus autem omnia videt in uno) ibid. qua.XIV,art.7

된 인식을 궁극적으로 동일성으로 소급시키고 있는데 이는 모든 판단이 결국 주어 개념 속에 내포된 술어를 이끌어 내는 분석 판단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론으로부터 창이 없는 단순 실체로서의 형이상적 단자 개념이 생겨난다. 즉 모든 판단이 단지 주어 개념에 내재된 징표들의 진술이듯이, 모든개체의 상태는 단순 실체인 단자의 자기 표현일 뿐이다.

여기서 라이프니츠의 판단론과 동일성 개념의 특징을 칸트와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라이프니츠에 있어 모든 판단은 단지 주어 개념의 분해에 의해 성립하는 분석 판단으로 환원될 수 있고 그 진리 기준인 동일률은 어떤 주어에도 자신과 모순되는 술어는 속하지 않는다"는 모순률과 일치한다. 그러나 칸트에 있어서는 모든 판단이 분석판단으로 환원될 수 없는 한에서, 모든 참된 판단의 원리인 동일률은 단지 분석판단의 원리인 모순율의 배면[무모순성원리]으로만 간주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동일률을 분석판단뿐만 아니라 종합판단 까지 포함하는 진리인식의 최고 원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왜냐하면, 칸트 자신이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그가 동일률을 주어와 술어의 일치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곳에서, 그의 표현을 빌자면, "주어가 그 자체로"(in se)고찰될 때 분석판단이 성립한다면, "주어가 [직관되는 것과] 결합에 있어"(in nexu)²⁴⁾ 고찰될 때 종합판단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비판」에서 통각의 종합적 통일 원리

칸트가 「비판」에서 종합판단의 최상원칙으로 간주하고 있는 통각에 의한 다양한 종합통일 원리는, 달리말해 다양한 표상들을 결합함에 있어 "자의식의 일관된 동일성"(durchgängige Identität des Selbstbewußtsein) (B135)이라고도 말해지고 있고, 이런 통각의 통일원리를 칸트는 "전 인간인식의 최상 원칙"(der oberste Grundsatz)(B135)이라고도 부른다. 즉 "통각

²³⁾ 물론, Heidegger가 잘 지적했듯이 (Die Frage nach dem Ding. 1962, S.135ff) 칸트가 「비판」속에서는 동일률을 따로 다루지 않고 분석판단의 최상원칙인 모순률($A \neq -A$)의 긍정적 정식화($A = A$) 정도로 이해하여 분석판단의 최상원리인 모순률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예를 (B10, B193 참조)을 명백히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자구 그대로에 충실한 이해에 반해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동일률이 형식논리적 차원에서 단지 분석판단의 최고 원리인 모순률을 자체내에 매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에 앞서 존재론적 차원에서 대상관련적인 모든 종합판단의 최고원리로서 간주될 수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이는 통각의 통일 원리도 분석판단의 근거인 분석적 통일의 기능과 함께 종합판단의 근거인 종합적 통일의 기능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

²⁴⁾ 칸트의 용어법상 "nexus"라는 말은 "이종적인것의 결합"으로 역학적 결합(dynamische Verknüpfung)라고 불린다. 이는 수학적인 동종적 결합인 "Compositio"와 구별되며, 예컨대 "실체와 우유", "원인과 결과"와 같은 힘의 영향관계에 있어서의 결합이다. 칸트는 이런 nexus를 "다양성의 현존(Dasein)의 결합"이라고도 부르며 이를 다시 i) 현상들 서로간의 물리적 결합(physische Verknüpfung) ii) 선형적 인식능력들에 있어서의 그것들의 결합인 형이상학적(metaphysische Verknüpfung) 결합으로 나눈다. (B202 Anm.)

의 종합 통일은 모든 지성사용이, 또한 전 논리학이 나아가 초월철학 조차도 그에 결부되어야 하는 최고정점”(B134 Anm.)이다. 이는 칸트가 「nova dilucidatio」에서 동일률에 부여한 명칭 즉, “모든 진리의 유일하게 절대적인 제 1의 보편적 원리”라는 호칭과 비견될 만하다. 그렇다면, 동일률과 통각의 통일원리 이 양자의 연관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앞서 동일률의 두 측면을 구별했다. 분석판단에 있어 성립하는 동일성과 종합판단에서 성립하는 동일성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일반논리학에서 다루는 무모순적 사유로서 통각의 분석적 통일(analytische Einheit)(B105)에 기초한 동일성이며, 후자는 초월논리학에서 다루는 통각의 종합적 통일(synthetische Einheit)에 기초한 동일성이다.

칸트는 한갓 개념들의 관계비교로 부터 “구별불가능자의 동일성원리”(principium identitatis indiscernibilium)(B337)를 이끌어 냈던 라이프니츠-볼프의 형이상학을 “(개념이 자기모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개념의 논리적 가능성을 (개념에 대상이 대응함을 근거로 하는) 사물의 실재가능성으로 바꿔치는 사기”(B302)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물들은 비록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성적 직관의 형식인 시간·공간 상의 차이를 지니며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갓 개념들의 관계를 비교·반성·추상하는 통각의 분석적 통일에 근거한 동일성은 내용[직관]적인 차이를 배제하는 추상적 동일성인데 반해, 통각의 종합적 통일에 근거한 동일성은 내용적인 차이를 배제하지 않는 구체적인 동일성이다. 즉 전자가 한갓 개념들 간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형식논리적 동일성(무모순성)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개념과 직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대상관련적 초월론적 동일성(대상성)이다.²⁵⁾

이러한 통각의 종합 통일활동은 감성적인 직관에 주어지는 다양한 표상들(술어들)을 모아 한 주어에 묶어줌(종합판단)으로써, 상이한 징표들을 갖는 한 대상의 동일성(대상성)을 정립한다. 이렇듯 다양을 결합하는 활동성(Ich verbinde)에 의해 비로소 주관의 동일성(Identität)이 의식된다. 즉, 다양을 결합하여 한 대상의 동일성을 확립하는 통각의 근원적인 종합 통일(die ursprüngliche synthetische Einheit der Apperzeption) (B135)에 의해 자의식의 일관된 동일성(durchgängige Identität)이 확보되는 것이다.²⁶⁾ 그러므로 상이한 여러

25) 따라서 칸트의 동일성(Identität)개념은 철학사적으로 볼때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칸트에 있어 동일(einerlei)과 차이(verschieden)는 Platon의 tauton 과 heteron 개념처럼 사물 자체에 속하는 성질이 아니며, 그것은 일치(Einstimmug)와 모순(Widerstreit), 안과 밖, 형식(Form)과 질료(Materie) 등과 더불어 반성개념(Reflexionsbegriffe)쌍의 하나로 간주된다.(B316-B349) 즉 그것은 단지 비교하는 반성속에서 나타나는 관계항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지 형식논리적인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니며, 그것은 일반논리적인 비교·반성의 원리일 뿐 아니라, 순수개념의 대상관련성을 반성하는 초월적 반성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것은 다양과 통일이라는 개념쌍과 더불어 모든 대상적, 범주적 연관의 전체로 상징되었을 뿐 그 원천은 더이상 해명되고 있지 않다. 필자는 이 개념쌍들을 반성적 판단력의 원리로 해석한다.(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칸트 초월철학에서의 형식개념, 1990.S.10ff 참조)

26) 이렇듯 통각의 근원적인 종합 통일 활동속에서 말해지는 통일(Einheit)은 양의 범주인 단일성 개념과 구별되어야 하는, 질적인 통일(qualitative Einheit)이다.(B131) 즉, “우리는 (질적인 것으로서

표상들이 “하나의 유일한 자의의식 속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종합명제는 우리의 사유일반의 단적으로 최초의 종합적 원칙(der schlechthin erste und synthetische Grundsatz)이다”(A118) 이렇듯 “선験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다양한 직관을 종합적으로 통일함은 나의 모든 일정한 사유에 앞서는 통각 자체의 동일성의 근거다.”(B134) 즉 “나는 나다”와 같은 공허한 분석적 동일성 명제는 다양을 결합하는 일관된 자의의식[종합적 동일성]으로 부터 파생된 것이다.²⁷⁾

우리의 인식능력은 판단과 추론을 수행함에 있어 그 본성상 필연적으로 동일률을 따르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식은 — 그것이 분석적 인식이건 종합적 인식이건 선験적이건 경험적이건 간에 — 다양한 표상들을 결합하고 분리함에 있어 자의의식의 동일성을 기초로 해서만 성립 할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분석판단의 경우 우리는 주어개념 속에 내포된 징표를 분석하여 그것을 술어개념과 비교함으로써 주어개념의 내포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할 때,²⁸⁾ 주어와 술어가 동일함을 정립(긍정)하고, 어긋날 때는 이를 배제(부정)한다. 이런 긍정과 부정은 통각의 분석적 통일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종합판단에 있어서는 한갓 개념들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즉 판단에 있어 주어와 술어의 논리적 연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태적 연관과 과연 일치하는지가 문제다. 따라서 긍정 종합판단에 있어서는 한갓 주어와 동일한 술어가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태와 동일한 술어가 정립된다. 즉, “종합판단에서는 [주어와의] 동일성때문에 술어가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일치하는] 술어때문에 동일성을 표상한다.”²⁹⁾ 예컨대 “Der Körper ist schwer.(물체는 무겁다)”와 같은 경험적 종합판단에 있어, 계사 “ist”는 무거움이라는 술어규정이 문장의 주어를 넘어 나에게 나타난 대상 자체의 성질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판단의 논리적 구조(S - P)와 현상사물의 존재구조(실체-속성)의 일치(동일성)를 가능케 해주는 근거가 “ 초월적 주관(transz. Subjekt)”(B404)의 근원적 종합 통일의 활동이다. 따라서 계사 “ist”는 Logos의 근원적 활동성을 표

§12) 이러한 통일을 한층 더 높은(noch höher) 데서 찾아야 한다. 즉 판단에 있어 상이한 개념들의 통일의 근거를 포함하며, 따라서 지성의 논리적 사용에 있어 지성의 가능 근거를 포함하는 곳에서 찾아져야 한다.” 통각의 종합 통일을 칸트가 질적 통일로 규정할 때 그가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스콜라 철학에서 존재(ens), 진리(verum), 선(bonum) 과 같은 초월적 규정들의 하나로 간주된 초월적인 일자(unum transcendens)라는 술어다. 그러나 칸트는 이 개념을 사물자체의 성질로 보지 않고, 이성의 구조속에 놓인 바, “ 다양한 인식의 결합을 통일 할 때 인식이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논리적 규칙”(B116) 으로 해석한다.

27) 즉 “통각의 필연적 통일 원리는 그자체가 동일적이며 분석적 명제(ein analytischer Satz)다.... 왜냐하면, 단순한 표상으로서의 자아에 의해서는 아무런 다양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B135) 그러나, “ 직관속에 주어지는 다양에 대한 통각의 일관된 동일성은 표상들의 종합(Synthesis)을 포함하며, 이 종합의 의식에 의해서만 일관된[종합적] 동일성이 가능하다.”(B133)

28) H.S.Reimarus, Logik(1758), § 57 재인용 P.Schulthess, Relation und Funktion, Berlin, 1981, S.40

29) I.Kant, Aademie-Ausg. Bd. XVII Nr. 3716

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표상들을 결합하는 활동 속에서 자신의 동일성을 산출하는 “Ich denke”는, 판단의 기능 속에서 모든 술어들의 담지자인 주어(subjectum)의 기능으로 대변되며, 또한 현상의 구조에 있어서는 다양한 성질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동일적으로 지속하는 기체(hypokeimeon)의 모습으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판단에 있어 술어들의 근거에 놓인 주어(Sub-ject)는 실재에 있어 우유들의 근거에 놓인 실체(Sub-stanz)와 유비적으로 상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응(Ent-Sprechen)은 “양자의 근거에 놓인 근원적으로 사유하고 언표하는 자아”(das beide zugrundeliegende denkende und sprechende Ich)³⁰⁾가 판단의 주어에 술어들을 정초하고 통일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연적인 성질들의 근거증과 통일의 과제를 실체적인 대상(Gegen-stand)에 위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즉,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물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속에 투입(hineinlegen)했던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며, “사물에 관해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만난다.”³¹⁾

³⁰⁾ F.Kaubach, Kants Transzendente Logik, S.136 in: Zur Kantforschung der Gegenwart, Darmstadt, 1981

³¹⁾ F.Kaubach, Kants Transzendente Logik, 1981, op.cit. 이에 대한 보다 깊은 탐구는 피히테의 지식학의 제1원리 속에서 찾아진다. 즉 “자아(das Ich)에 의한 자아의 정립은 자아의 순수 활동성(reine Tätigkeit)이다. 즉 나는 나 자신을 정립한다(Das Ich setze sich selbst) 그리고 나는 이런 한 것된 나 자신에 의한 정립에 의해 존재한다.” 따라서 피히테에 있어서는 $A = A$ 라는 동일률이 공허한 동어반복이 아니라, 사유(Denken)와 존재(Sein)의 동일성, 다시말해, 사유하고 정립하는 자아와 정립된 현실적 자아의 동일성(Ich bin Ich)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지니며 전지식학의 근본원리가 된다. (Fichte, Grundlage der gesamten Wissenschaftslehre §.1, 1794) 그런데, 이런 사유($\nu\omicron\epsilon\iota\nu$)와 존재($\epsilon\iota\nu\alpha\iota$)의 동일성($\tau\omicron$ αυτο)에 대한 주장은 이미 파르메니데스 이래 서구형이상학의 오랜 전통을 이룬다. (Diels-Kranz, Fragmente der Vorsokratiker, Fr. III) 스토텔레스에 있어서도 최고의 현실성($\epsilon\nu\tau\epsilon\lambda\epsilon\chi\epsilon\iota\alpha$)인 神은 자기사유($\nu\omicron\eta\sigma\iota\varsigma$ $\nu\omicron\eta\sigma\epsilon\omega\varsigma$)로서 특징지워졌고, (Aristoteles, Metaphysic X II, 9, 1074b 33ff.) 오늘날의 하이데거도 플라톤 이래 자기동일성(das Selbe)으로 이해되어 온 이 명제($A = A$) 속에 칸트 이래 독일 관념론에 의해 밝혀진, 매개(Vermittlung), 종합(Synthesis), 통일화(Einung in Einheit)의 계기가 들어 있음을 밝히고 (Heidegger, Identität und Differenz, 1957 S.11) 이를 다시 파르메니데스의 시원적인 사유어로 소급시킴으로써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 즉, 인간과 존재의 공속함(Zusammengehörigkeit)의 근원체함으로써 이끌고 간다. (ibid, S.14-19) 우리는 여기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궁극목적은 신과의 동일성”(Identität mit Gott)이라는 쉘링의 언표와의 유사성을 읽을 수 있다. 하이데거가 잘 지적했듯이 신적 인식의 이념과의 연관없이는 “근대철학의 근본문제는 완전히 은폐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Logik im Ausgang von Leibniz, 1978 Bd.S.54)

2. 無의 문제

2-1) “도대체 왜 존재자가 있고, 오히려 無가 있지 않은가?”³²⁾ 이 물음은 유한한 인간이 물을 수 있는 물음 가운데, 물음의 서열상, 가장 최초의,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심원하며,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다.³³⁾ 이토록 근본적인 물음 속에서 우리가 당혹스럽게 마주치게 되는 無(nihil)의 문제는 중세 기독교적 사유에 있어 無로 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근본 명제와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세적 사유에 있어서도 모든 존재자를 최고의 실재자(ens realissimum)와 無와의 혼합으로 설명하려는 합리론적 형이상학과 깊이 연루되어 있는 근본문제다.³⁴⁾

한편, 모순률을 모든 진리인식의 유일하게 절대적인 제 1 원리로 삼았던 볼프의 존재론에 있어서도 그 필연적인 귀결로서 “존재자”(ens)나 “어떤것”(aliquid)보다 앞서 “無”(nihil) 개념이 존재론의 첫번째 용어로서 등장하게 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다.³⁵⁾ 마치 “0”이 수계열 앞에 오듯, 無를 존재자들의 서열 중 맨 앞에 내세운 볼프는, 無를 “아무 개념도 그에 상응하지 않는 것”(id cui nullo respondet notio)이라고 해명하고, 이를 “존재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그에게 있어 無란 자기모순적인 사고와 관련되며, 생각할 수 없는 것이자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칸트가 이문제에 대해 숙고하게 된 것은 아마도 바움가르텐의 「형이상학」강의와 연관해서였을 것으로 보이지만,³⁶⁾ 그 자신의 고유한 문제의식으로 부터 다루고 있는 것은 다음의 두 저술 속에서다. 즉, 그 첫째는 “음수의 개념을 세계지에 도입하려는 시도”(Versuch den Begriff der negativen Größen in Weltweisheit einzuführen)(1763)³⁷⁾이며, 둘째는 「순수이성 비판」 분석론의 부록인 “반성개념” 章 주석 말미에서 제시하고 있는 “無의 분류표”³⁸⁾(Tafel der Einteilung von Nihts)다. 칸트는 타당한 지성사용의 한계를 가능한 경험의 영역 내에 한정시킨 초월적 분석론(transzendente Analytik)의 성과가 종래의 존재론(Ontologie)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고(B303), 이런 새로운 존재론의 체계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32) Heidegger, Einführung in die Metaphysik Bd.40, §1

33) op.cit

34) H.Heimsoeth, Studien zur Philosophie Immanuel Kants Köln, 1956, S.9 참조. 이렇듯 모든 존재자와 존재를 심연인 無의 배후근거로부터 이해하려는 시도는 쿠자누스(N.Cusanus)나 뵘메(J.Böhme)등의 신비주의적 사유나 부정신학은 물론 오늘날의 하이데거의 사유속에서도 엿보여진다.

35) Chr. Wolff, Ontologia. §57

36) Baumgarten은 Metaphysica §.7에서 모순율을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nihil negativum cf. §.54, irrepresentabile, impossibile, repugnans (absurdum cf. §13) contradictionem involvens, implicans, contradictorium, est A et non-A, seu praedicatorum nulum est subjectum, seu nihil est. $0 = A + \text{non } A$ Haec propositio dicitur principium contradictionis, et absolute primum (Akad.-ausg. Bd XVII S.24)

37) 이하에서는 Begriff der negativen Größe로 표기

38) B 346-349

無개념을 범주론의 순서에 따라 넷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음수의 개념”에 관한 저술에서부터 시작하여 칸트가 이 주제에 접근하는 고유한 문제의식은 한갓 논리적으로 자기모순적인 것(nihil negativum)으로서의 절대 無가 아니라, 사실적이고 적극적인 사태구성요소로서 실재적인 對立(reale Entgegensetzung)³⁹⁾이다. 즉, 칸트는 여기서 대립(oppositio)이라는 말의 두 의미를 구별한다.⁴⁰⁾ 즉, 첫째, 논리적인 대립(logische Opposition)으로, 이는 동일한 주어에 대해 어떤것이 동시에 긍정되고 부정되는 경우이며, 이런 논리적 결합의 결과는 전적으로 무다. 즉 생각할 수조차 없다. 예컨대, 우리는 “한 사물이 움직인다.”는 사태나 “한 사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태를 각각 어떤것(etwas)으로서 생각 속에 정립할 수 있지만, “한 사물이 움직이며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태는 표상할 수조차 없으며, 따라서 전혀 있을 수 없는 것, 말하자면 절대 無(nihil absolutum)다. 이는 동일한 주어에 모순되는 두 술어를 정립할 수 없다는 모순물에 기초하는 대립이요, 이로 부터 생겨나는 無다.

그러나 실재적 대립(reale Opposition)은 서로 상반되는 두 술어가 한 사물에 대해 정립되지만 그러나 결코 모순적이지는 않는 경우이며, 이런 실재적 결합의 결과는 無가 아니라 어떤 것(etwas)이다. 예컨대 한 물체 속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서로 대립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반되는 술어규정은 모순적인 것은 아니며, 이런 실재적 결합(nexus realis)의 결과는 無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 (etwas) 즉, 정지(Ruhe)다.

물론, 정지란 운동의 결여(privatio)로서 일종의 無(nihil privativum)⁴¹⁾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절대無(nihil negativum)와는 구별되며, 또한 단지 생각할 수만 있는 공허한 개념(ens rationis)(B347)과 구별된다. 즉, 그것은 우리가 감각적 경험을 통해 내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것(etwas)이다. 칸트는 이런 실재적 대립의 관계(Realrepugnanz)를 수학에서 양수(+)와 음수(-)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이런 실재적 대립은 모순물에 근거하는 형식논리에서의 논리적 대립에서 처럼 하나의 정립과 다른 하나의 정립을 함께 생각할 수조차없는, 둘 사이에 아무런 연관도 성립할 수

39) Begriff der negativen Größe A6

40) ibid. A3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로 대립한다(einander entgegensetzen)함은 하나가 다른 것에 의해 정립된 것을 지양한다(Aufheben)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2중적인데, 그것은 모순에 의한 논리적인 것이거나, 모순없는 실재적인 것이다.” Hegel이 엄밀한 의미의 ‘논리적 모순’과 이러한 ‘실재적대립’개념을 혼동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Hegel의 변증법적 ‘지양’(Aufheben) 개념의 원초적인 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립된 것들은 동일한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관계맺거나, 대립되어 지양되거나, 서로 무관심한 한에서 모순(Widerspruch)을 포함한다.”(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Kap. 2, C. Anm. 3)

41) 칸트는 이렇듯 상대적인 무로서의 ‘정지’, ‘어두움’, ‘차가움’ 같은 ‘결여적인 무’(nihil privativum)와 공허한 직관으로서 상상물(ens imaginarium) (B348)인 시간·공간을 “개념에 대한 공허한 소여”(leere data)라고 부른다.(B349) 즉, “빛이 감각에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두움도 표상할 수 없고, 연장체가 지각되지 않으면 공간도 표상할 수 없다.”

없는 모순관계가 아니라, 하나와 다른 하나의 결합(nexus)이 가능한 따라서 상호 영향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대립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 대립의 결과는 단적인 無가 아니라 상대적인 無로서 어떤것, 실제적인 것일 수 있다. 이는 수학에서 “+3”과 “-3”의 합으로서의 “0”이 절대적인 無가 아니라 상대적인 無인것과 같다.⁴²⁾ 이는 물리학에서 하나의 힘(Kraft)과 반대되는 힘(Gegenkraft)의 통일이 “정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에서 快과 불쾌의 감정을 지양한 것이 “無관심적 만족”⁴³⁾으로 표상되는 것과 같다.

이제 칸트는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이상학적 명제를 이끌어 낸다. 즉, “세계의 모든 자연적 변화에 있어 적극적인 것의 총합(die Summe des Positiven)은, 서로 일치하는 정립들이 더해지고, 서로 대립하는 정립들이 배제됨으로써 그것이 측정되는 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⁴⁴⁾ 이를 달리 말하면 “우주의 모든 실제적 근거들(Alle Realgründe des Universum)은 만일, 서로 일치하는 것이 모아지고, 서로 대립하는 것이 빼진다면, 그 총계는 영(Zero)과 같다.”⁴⁵⁾

그렇다면, 이제 이런 칸트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 속에서 만나지는 존재자들이 모두 실제적 상충(Realrepugnanz)의 긴장 속에서 상호지양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방향으로의 한 물체의 운동에는 그것과 상반되는 운동의 부정이 결부되어 있다.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omnis determinatio est negatio)라는 스피노자의 명제는 이제 그것이 사물들의 실제적 영향관계(influxus physicus) 속에서 성립하는 자연현상에 있어 이렇듯 대립되는 것의 부정은 모든 적극적인 실재성(realitas)의 정립과 결부되어 있다.⁴⁶⁾ 따라서 실제적 대립은 모든

42) 칸트는 「비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B321ff) 즉, Leibniz와 Wolff 처럼 “실재성을 단지 순수 지성에의해 표상할 경우(realitas noumenon), 실재간에 아무런 대립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동일한 주어에 결합된 두 실재가 서로 그 결과를 상쇄하는 관계(3-3=0)는 생각될 수 없다. 그러나, 현상적 실재(realitas phaenomenon)는 서로 대립하고 이런 실재들이 동일주어 속에 결합되면 한 쪽이 다른 한쪽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무효화 할 수 있다.”(B321) “그리고, 이러한 표상이 가능한 조건은 오직 우리 감성에서만 발견된다.”(B330) 칸트는 그 예로서, “동일한 직선상 한점을 운동하는 두 힘[z.B. 인력과 척력]이 당기고 미는 경우”와 “만족과 고통의 평정을 유지한 경우”를 들고 있다. (B322)

43) I.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 27

칸트는 미적인 감정과 숭고의 감정을 무관심적 만족의 예로 간주한다. 즉, 숭고의 감정은 단순한 적극적 쾌감의 느낌이라기 보다는 외경의 느낌을 내포하며, 일종의 불쾌와 결부된 소극적인 쾌감이라고 설명된다.

44) Begriff der negativen Größe A51

45) ibid. A56 칸트는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즉, “세계전체는 그 자체로서는 무다. 그것이 어떤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것은 세계밖에 있는 어떤것의 의지에 의존한다. 따라서 세계내에 근거를 갖는 존재의 총화는 그 자체로는 0이다. 신의 의지와 관계에서 보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적극적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세계의 본질을 그 자체만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46) 칸트는 라이프니츠 이래 충족이유율로 불리워 온 원리를 규정근거의 원리 (principium rationis

적극적인 사태구성의 요소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들의 전체에 있어 실제적인 것을 그것과 대립되는 것과 상쇄해 보면 결과는 0이다.⁴⁷⁾

2-2)칸트는 모순물에 기초한 순 개념적 사유만으로 사물일반에 관해 판단하려했던 종래 합리론적 형이상학이 간과한 것이 바로 이런 실제적 대립관계라고 보았다. 이런 대립은 결코 논리적 대립 즉, 단적으로 無인 모순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적극적인 측면을 지닌다. 이런 실제적인 대립(*oppositio realis*)관계는 한갓 無모순적 사유가 개념들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끄어 낼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니라, 감각적인 질료적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 안에 지배하는 힘들에 의존하며 이는 개념만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물질의 근본 힘들과 그 상호 연관 관계(*influxus physicus*)는 경험의 연관 속에서 주어진다. 칸트가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의 구별을 수행하게 된 근본 동기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한갓 지성과 그 모순물로는 논리적 가능성과 개념들의 논리적 연관만을 알 수 있지, 사물의 실제적 가능성과 그것들의 실제적 연관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모순물은 단지 개념의 분석을 통해 성립하는 분석판단의 원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사물의 실제 가능성과 실제적 결합의 원리는 무엇인가?

3. 근거

라이프니츠와 볼프에 있어 이런 실제적 결합의 원리는 충족이유율(*principium rationis sufficientis*)이라고 불리워 졌다.⁴⁸⁾ 그런데 볼프는 이 원리를 또한 그의 존재론의 최상원칙인 모순물로 부터 도출해낸다. 이렇듯 논리적 연관으로 부터 존재론적 사태연관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는 이미 라이프니츠에게서도 그 싹을 엿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참된 명제는 주어개념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던 술어개념을 이끌어 내는 분석판단이라는 판단론으로부터, 이런 논리적인 주어-술어 관계를 사태일반에 적용시켜, 존재론적인 이유(실체)-귀결(우유)의 관계를 도출해 낸다. 즉, 예컨대, “ ‘아담’ 이라는 개별자의 개념에는 그때그때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내가 말할 때, 이는 술어가 주어안에 내재함(*praedicatum inest subjecto*)이 참되다고 모든 철학자들이 말하는 바이외 다름아니다.”⁴⁹⁾ 즉 사실적인 실체와 우유의 관계가 논리적인 주어와 술어의 관계로 부터 이해되어 “*inesse*”로 규정된다.⁵⁰⁾

determinantis)라고 부르고, 이때 “규정한다는 것은 그 반대를 배제하고 한 술어를 정립함” (*determinare est ponere praedicatum cum exclusione oppositi*)을 말한다고 해명한다.

(*Nova Dilucidatio Sectio II. prop.IV*)

47) 우리는, 여기서 Schopenhauer가 칸트의 비판철학의 핵심을 현상계, 즉 인간의 표상세계를 단지 환영(*Maya*)에 불과하다고 보는 고대 인도의 Vedanta사상과 연결지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48) Chr. Wolff, *Ontologia* §139 볼프는 근거율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無가 아닌 어떤 것 (*aliquid*)이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49) G.W. Leibniz, *Hauptschriften zur Grundlegung der Philosophie*, Bd II, Leipzig, 1904, S.20

라이프니츠에 있어 사물의 현존과 생성의 원리였던 충족이유율은 볼프에 와서 “인간정신과 통찰의 원리”로서 보다 강한 인식론적 지향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모순틀처럼 보편적 원리로 간주되는 이 원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는 물론 실체와 우유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즉, 모든 생성하는 것들의 근거는 원인 속에 있고, 우유들의 근거는 사물의 본질적 구성요소들(essentialia)안에 있다. 따라서, “근거없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nihil est sine ratione)

칸트가 「음수의 개념을 세계지에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전비판기 저작이래 , 「비판」의 「반성개념」章에 이르기까지 라이프니츠-볼프철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바로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수학적 사태에 있어서나 물리적 현상 및 심리적 현상에 있어 공히 나타나는 실재적 상충(Realrepugnanz)을 논리적 모순과 명확히 구별지우려는데 있다. 이는 다시말해 한것 모순틀에 기초한 분석판단과 경험 — 그것이 현실적 경험이면, 가능한 경험이면—에 기초하는 종합판단의 구별과도 일치한다. 즉, 칸트는 단지 논리적 이유 - 귀결관계로 부터 원인 - 결과의 관계는 물론 실체 - 우유의 관계도 이끌어 내는 종래의 독단적 형이상학에 맞서, 근거율의 타당한 적용범위를 실재적 저항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마주치는 인과관계에도 제한한다.

이런 실재적 대립관계는 개념들의 분석을 통해서서는 더이상 명확히 할 수 없는 실재적인 것(realitas phenomenon), 어떤 적극적인 것이다. 때문에 칸트는 경험의 유추(Analogie des Erfahrung) 원리들 가운데 두번째인 원인성의 원리(B232)를 단지 시간적으로 계기하는 현상들에만 그 타당한 사용의 한계를 제한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것의 원인을 인식한다 함은,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끔 추동시킨 힘(bewegende Kraft : vis movendi) (B67, B321)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힘의 영향관계는 결코 개념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태(realitas noumena)가 아니다. 즉, 우리가 마주치는 자연현상의 원인은 결코 개념의 논리적 근거(logische Grund) 만으로 알 수 있는 이유 - 귀결의 관계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의 실재근거(Realgrund)가 다른 한쪽의 실재근거로 부터 나온 결과를 무력화하는” 실제적인 “상호상쇄하는 對立”(B330)의 인식 역시 단지 개념들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태가 아니며, 이런 실재적 대립과 상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

50) Heidegger,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Logik im Ausgang von Leibniz*, 1978, Bd.26, S.43
이렇듯 현실적인 사태연관이 논리적 연관으로 부터, 쉽게 통찰되는 것이라면, 이는 그가 필연적인 이성의 진리와 우연적인 사실의 진리를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양자가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우연적진리에 있어서도 술어는 주어 속에 [숨겨져] 있지만, [유한한 지성에게는] 결코 엄밀히 증명될 수 없다. 즉, 주어와 술어의 관계는 동일성(identitas)으로 가져가질 수 없고, 분석은 무한히 계속된다.(resolutio procedit in infinitum) 그러나 오직 신만이 그 결합을 즉, 주어 속에 술어의 계열이 포함되어 있음을 본다.”(De libertate, in: *Nouvelles Lettres et Opuscules inédits de Leibniz*, pub. par Foucher de Careil, Hildesheim 1971, S.182) 따라서 라이프니츠에 있어 모든 진리의 기준은 동일성, 즉 무모순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

51) B 195쪽, 여기서 현실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 후험적 종합판단이라면. 가능한 경험에 기초한 것은 선험적 종합판단이 될 것이다.

이다.

즉, 칸트가 노리는 것은 도대체 인식이 참된 사태인식이기 위해서는, 다시말해 “객관적 실재성을 지니기 위해서는”(B194) 단지 개념분석에 의한 분석적 인식이어서는 없되며, 주어진 개념을 넘어 대상과 관계하는 종합적 인식이기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참된 인식의 궁극적인 근거는 분석판단의 최고원리인 통각의 분석적 통일(모순률)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합판단의 최상원칙인 통각의 종합적 통일에서 찾아져야 한다.

모순율에 기초한 “분석의 근본개념이 사유가능성[무모순]과 불가능성[모순]이라면, 종합의 근본개념은 공간(Raum), 시간(Zeit) 그리고 힘(Kraft)이다.”(XVII-Nr.3716) 즉 통각이 직관의 다양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직관방식인 시·공의 순수다양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든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인식되고 또한 임의의 다른 사물과의 연관이 실제적인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서로 잇달아(Nacheinander)와 서로 곁하여(Nebeneinander)의 관계질서 속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종합판단의 최고 원리인 통각에 의한 다양의 종합통일원리는 이런 시·공의 순수다양을 자신의 한 계기로서 필요로 하며 상상력의 종합을 매개로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다양한 자료들이 지성개념들과 관계맺음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여기서 사물들의 실재적 연관(nexus)과 영향관계(influxus physicus)를 인식하는 종합판단의 성립근거 자체 속에도, 이미 우리 인식능력들의 실재적 연관과 상호작용(Wechselwirkung)이 성립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칸트는 유한한 인간의 참된 인식 가능성을 이렇듯 상상력의 순수종합(reie Sythesis)(B104)을 매개로 하는 인식능력들 간의 상호연관과 일치(통각의 종합통일 원리) 속에서 찾았고, 바로 여기에서 또한 비로소 사물들의 참된 연관과 결합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질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를 발견했던 것이다⁵²⁾.

이렇듯 초월적 統貫의 종합적 통일의 원리는 대상과의 만남, 즉, 경험일반을 가능케 하는 조건(근거)이 될 뿐아니라, 또한 동시에 경험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만나질 수 있는 조건(근거)이 된다.

III. 결 론

라이프니츠와 볼프에게 있어서 모든 참된 인식의 기준은 모순률이었다. 즉, 한갓 무모순적인 사유가능성으로부터 출발했던 종래의 독단적인 합리론자들에게는 모든 참된 판단은 주어 개념속에 이미 내포되어있는 술어를 이끌어내는 분석판단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인 모순율에 의거, 술어개념이 주어개념 속의 징표와 일치할 때 참이요, 일치하지 않을 때는 거짓이다. 이러한 주어와 술어의 일치에 있어 표명된 동일성이란 곧

52) 칸트에 있어 종합일반의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는 필자의 논문, 『선형적 구상력과 시간』, 철학논구 14집, 1986, pp125-146 참조.

무모순성이외 다름아니다. 즉, 무모순성의 기준으로 부터, 동일물은 물론 근거율도 이끌려 나온다. 모든 참된 판단의 술어가 주어개념 안에 근거하고 있듯이, 모든 사물의 성질들은 실체적 본질안에 근거를 지니며, 모든 결과는 원인에 근거한다.

그러나, 경험의 가능성, 대상의 가능성으로 부터 출발하는 칸트의 초월적 반성 속에서 모든 참된 인식의 궁극적 원천은 다양을 결합하는 통각의 종합통일 원리에서 찾아진다. 이는 주어개념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지 않던 대상의 징표를 부가함으로써 주어개념의 내용을 확장시켜 주는 종합판단을 가능케 하는 원리이자, 다양한 표상들을 결합하는 활동 속에서 대상의 동일성과 자아의 동일성을 성립시키는 근거이기도 하다. 자아와 대상의 동일성은 한갓 무모순적 사유가 개념분석을 통해 확립할 수 없는 문제다. 모순율과 그 배면으로서의 동일율은 진리인식의 적극적인 기준일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동일성(Identität) 개념의 두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 첫째, 종래 모순율의 배면으로서, 차이를 배제하는 추상적인 동일성 즉, 무모순성과 둘째, 차이를 배제하지 않는 동일성으로, 통각의 종합 통일 원리로 표현되는 바, 상이한 표상들을 결합함에 있어 자의식의 일관된 동일성을 말한다. 그러나, 칸트에 있어 근원적인 동일성은 후자의 의미의 동일성이다. 즉 차이를 배제하지 않는 바, 서로 대립되는 요소를 하나로 묶는 통일작용에 근거한 동일성이다. 전자의 동일성은 후자로 부터 파생된 통각의 분석적 통일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통각의 종합적 통일(synthetische Einheit)에 근거한 우리 의식의 일관된 동일성(durchgängige Identität)은 모든 인간적 인식의 궁극적인 근거(Grund)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소여(술어)들을 하나의 동일한 대상(주어)속에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대상의 대상성을 가능케하는 대상경험(종합판단)의 가능근거일 뿐만아니라 , 파생적으로 분석적 통일(analytische Einheit)의 기능에 의해 한 개념 속에 결합된 내용을 분해하여 그 관계를 재차 반성함으로써 무모순적 사유 속에서 재결합하는 분석판단을 가능케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즉, 칸트에 있어 동일성의 근원적 의미는 상이한것들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대상(Gegen-stand)으로 마주서게 하는 Logos의 근원적인 활동성을 뜻한다. 때문에 칸트는 "Ich denke"의 활동을 "대상의 모든 표상에 선행하는 논리적 작용(der logische Akt)"(XXII-85)이라고 부른다. 이때의 '논리적'이란 한갓 형식논리적 의미의 분석적 통일의 기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을 결합하여 대상을 내앞에 세우는 "Ich verbinde"의 근원적인 종합적 통일기능(die ursprüngliche synthetische Einheit) (B135)을 의미한다. 따라서 , "Ich verbinde"의 종합적 통일에 기초한 우리의식의 일관된 동일성(durchgängige Identität)은 , 모든 참된 인식의 궁극적인 근거이며, "형식적으로 볼 때(natura formaliter spectata) ,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자연현상의 근거(Grund)다.(B163)

참 고 문 헌

- I.Kant, Principiorum primorum cognitionis metaphysicae nova diluci datio(1755)
———, Versuch, den Begriff der negativen Größen in Weltweisheit einzuführen(1763)
———, Kritik der reinen Vernunft(1787)
———, Opus Postumum(1796-1803)
- Aristoteles, Metaphysica, by W.D.Ross, Oxford, 1958
———, De interpretatione, WB., Bd.1, hrsg.von H.Flashar, Berlin Thomas von Aquinas, Summa Theologiae (1265-1273)
- Chr.Wolff, Philosophia prima sive ontologia(1736) [Hildesheim, 1962]
- A.G.Baumgarten, Metaphysica (1757) in: Kant's Akad.-Ausg. Bd.XII
- G.W.Leibniz, Hauptschriften zur Grundlegung der Philosophie, 2 Bde. Leipzig, 1904 [3.Aufl.Hamburg 1966]
———, Opusculs et Fragments inédits de Leibniz. Ed.par L.Couturat, Paris, 1903 [Hildesheim 1961]
- J.G.Fichte, Grundlage der gesamten Wissenschaftslehre, 1794
———, Über das Verhältnis der Logik zur Philosophie oder transzendente Logik. Vorlesungen 1812
- G.W.Hegel, Wissenschaft der Logik (1832), Felix Meiner, GW Bd.21/22
- E.Husserl, Formale und transzendente Logik.hg.P.Janssen, Haag, 1974
- M.Heidegger, Logik, Frankfurt a.M., 1976, Bd.21
———,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Logik im Ausgang von Leibniz, Frankfurt a.M., 1978, Bd.26
———, Identität und Differenz, Neske Pfullingen, 1957 Bd.11
- H.Heimsoeth, Studien zur Philosophie Immanuel Kants, Köln, 1956
- P.Schulthese, Relation und Funktion, Berlin, 1981
- F.Kaulbach, Kants Transzendente Logik im: Zur Kantforschung der Gegenwart, Darmstadt, 1981